

뚝포의 쌩쌩정보

호텔 하우스키퍼가 알려주는 호텔 이용예절 7가지

국내외 경계를 넘어 어디라도 여행을 가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는 호텔, 모텔, 홀리데이하우스 등을 이용
할 때 지켜야 할 기본예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숙소 예약 시 투숙객의 인원을 속이지 말자

<가끔 비용 절감을 위해 투숙객의 숫자를 속이는 사람들>
2명을 예약하고 3명, 4명이 들어와 잠을 자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체크아웃 후 뒷정리를 하는
하우스키퍼들은 대부분 눈치챈다고 합니다.
하룻밤 비용 절감을 위해 양심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 샤워 커튼을 꼭 치고 샤워하자

<샤워 커튼을 꼭 치고 물이 바닥에 흐르지 않도록>
외국의 화장실에 가면 대부분 바닥에 배수구가 없으며
가끔 화장실 바닥을 카펫으로 깔아 놓은 곳도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과는 다른 측면으로 외국의 화장실은
물청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샤워를 할 때는 커튼을 욕조 안쪽으로 치고 샤워를 합니다.



✓ 사용한 수건과 샤워가운은 욕조에 쌓아두자

<지저분한 객실 바닥에 두셨다면>
사용한 축축한 수건과 샤워가운을 욕실과 객실
바닥에 툭툭 던져두고 가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사용한 수건과 샤워가운은 욕실 안에
쌓아두기로 해요. 이것은 하우스키퍼를 배려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바닥에 던져진 수건을 다음에
내가 다시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침대 시트는 하루 이상 사용하지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갈아주는 깨끗한 시트와 이불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은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트가 특별히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하루 이상 같은 시트를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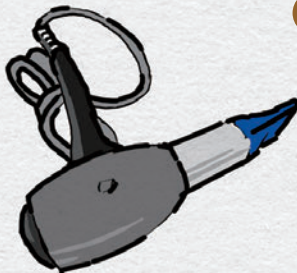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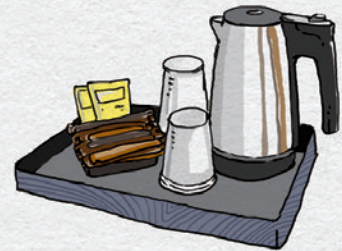


✓ 외출 시는 여행 가방을 전용 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하우스키퍼들의 바닥청소가 한결 쉬워진답니다>
며칠간 같은 숙소에 머물 경우 여행 가방을 바닥에 펼쳐둔 채로 외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행 가방 전용 자리에 여행 가방을 올려둔다면 바닥청소가 한결 쉬워지고 더 깨끗하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 전기 포트에 라면, 우유 등을 끓이지 말자

<호텔에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간혹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우유를 데워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뒷정리하는 하우스키퍼들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는 일이니깐요. 꼭 커피나 차를 끓일 때만 사용하시길...



✓ 헤어드라이어, 수건, 샤워가운, 멀티탭 등 가져가지 말자

<호텔 비품은 절대 손대지 맙시다>
일회용으로 포장된 스킨로션, 비누, 칫솔, 면도기 등은 부족할 경우 요청하면 더 받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헤어드라이어, 수건, 샤워가운, 멀티탭 등 호텔 비품은 손대지 맙시다. 호텔 수건은 아주 고급 수건을 사용한다고 해서 슬쩍하며 양식을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남보다 내가 먼저 지키고 배려하는 매너로 생생한 여행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